

說文解字와 正易原義의 十二支에 關한 研究

홍진임¹, 윤창열^{1*}

¹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A Study on *Seolmunhaeja* and *Jeongyeokwonui*'s Twelve Earthly branches.

Hong Jin-Im¹, Yun Chang-Yeol^{1*}

¹Dept. of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eajeon University.

Objective : Ten heavenly stems and twelve earthly branches are the important means to understand the orders of changes in heaven and earth. **Method** : We have so far looked into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welve earthly branches in *Seolmunhaeja*, annotations in *Seolmun of four major people*, and commentaries in *Jeongyeokwonui*. **Result & Conclusion** : This can be also applied to the explanations of twelve early branches, as follows. In the 11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the yang energy is finally born amid full of the ying energy. In the 12th month, the yang energy prepares to break through the knots of the ying energy and gets ready to come out of the ground. In the first month, three kinds of the yang energy start to become vigorous and active. In the second month, the yang energy gains more force, sprouting various plants on the ground. In the third month, the yang energy arouse further, strengthening and growing plants. In the fourth month, all the yang energy is released, while the ying energy is still hiding. In the fifth month, one ying energy is born amid full of the yang energy, and there are interchanges between the yang energy and the ying energy. In the sixth month, the yang energy is still strong and vigorous, ripening the fruits in the fields. In the seventh month, the yang energy starts to hurt all creation. In the eighth month, the ying energy starts to flourish, and the yang energy starts to decline, diminishing all creation and, however, still ripening grains to be harvested. In the ninth month, one yang energy starts to hide from sight, not working its duty, while five kinds of the ying energy start to annihilate all creation. Finally, in the tenth month, the small yang energy hides to be rebirthed amid the flux and reflux of the ying-yang energy. The creative and unique interpretation of *Jeongyeokwonui* about twelve earthly branches is worth to be referred. It is definitely beyond the other existing explanations, as it incorporates trigrams and hexagrams from *I Ching* (Book of Changes) and the five primary substances.

Keywords : Twelve Earthly branches (十二支), Heavenly stems and Earthly branches (干支), *Seolmunhaeja* (『說文解字』), *Seolmun of four major people* (說文四大家), *Jeongyeokwonui* (『正易原義』)

서 론

干支의 由來와 歷史는 대단히 오래되었다. 宇宙의 변화는 天地의 변화이고 天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干支가 創始되었다.

干은 10干, 天干이라고도 부르니 10개의 부호로써 하늘의 변화를 파악하고 支는 12支, 地支라고도 부르니 12개의 부호로써 땅의 변화를 파악한다. 天生地成하니 干은 幹으로 하늘기운이 운행하는 줄거리만을 밝히고, 支는 枝니 天道가 땅에서 구체적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즉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天干에는 土가 戊, 己 2개 밖에 없어 변화의 틀만을 나타낼 뿐이고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의 地支에는 辰, 戌, 丑, 未의 四土가 있어 四方과 四時에서 本中未과 始中終의 운동이 완전히 이루어져 마디마디마다 변화를 완성한다.

著者は 앞서 『干支의 意義와 設문해자의 十干에 관한 研究』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이어 十二支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東漢時期에 許慎이 지은 『說文解字』는 중국의 문자훈고학에서 “字書鼻祖”로 불려지는 대단히 중요한 서적이다. 이 책의 말미에 10干과 12支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說文解字』의 내용은 清代에 이르러 說文四大家가 출현하며 자세한 주석을 달았다. 說文四大家는 段玉裁(1735~1815), 桂馥(1736~1805), 王筠(1784~1854), 朱駿聲(1788~1858)이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를 지어 허신이 풀이한 글자의 뜻을 本義로 삼은 다음 그것의 引申義와 假借義를 추론하였으며 桂馥은 『說文解字義證』을 지어 여러 서적들 가운데 보이는 훈고를 두루

인용하여 한글자의 여러 가지(많은 경우에는 10여 가지)뜻을 순서에 따라 상세히 배열하였다. 또 王筠은 『說文解字句讀』를 지어 단옥재, 계복 두 사람 및 기타 학자들의 논증을 두루 참고하여 각각의 좋은 점을 취하는 한편 약간의 증보와 수정을 가하였고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을 지어 허신의 글자풀이를 다시 상세하게 해설하였고 해당 글자의 뜻과 그 聲旁의 뜻 및 상호간의 引申 假借를 해설하였다.

저자는 설문사대가의 주석을 참고하여 허신이 설명한 12支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들 注釋속에는 『史記』, 『漢書』, 『白虎通』, 『釋名』 등에서 說明한 12支에 대한 해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12支의 종합적인 의미를 고찰할 수가 있다.

설문사대가 중 朱駿聲이 지은 『說文通訓定聲』은 『설문해자』에 대한 주석서가 아니므로 본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이 많지 않다.

『正易原義』는 十清 李斯文(1850~1899, 李景直)이 지은 正易의 해설서이다. 李斯文은 1885년 36세 때 一夫先生의 문하에 들어가 先後天變易之理를 대각하였으며 1889년 40세 때 『正易原義』를 지었다. 그는 여기에서 12支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는데 참고할만한 내용이 대단히 많다.

著者は 먼저 『說文解字』의 본문을 번역하여 각 地支마다의 대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注釋家들의 주석과 『正易原義』의 내용을 통해 12支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四大家의 주석은 내용이 많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著者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인용하여 번역하였다. 그리고 考察과 分析을 통해 앞의 내용을 總括하여 『說文解字』에 있는 12支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2支 각각의 개념

먼저 『說文解字』 원문의 내용을 『文白對照說文解字譯述』의 번역을 통해 대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說文四大家의 註釋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正易原義』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子

子(子)는 十一月에 陽氣動하여 萬物滋라 人以爲僂이라 象形이라.

【번역】 子는 지지의 첫 번째 자리이다. 12地支로써 북두칠성의 자루가 가리키는 12개의 방위를 표시하면 정확하게 12달과 배합됨으로 每月의 月建이 된다. 음력 11월의 월건은 子가 되고 卦는 地雷復(䷗) 卦가 된다. 이때에는 一陽이 發勃하여 萬물이 처음으로 아래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子는 본래 陽氣가 動하여 萬물이 滋(불어나다. 자라다)하는 것을 말하니 사람들이 이를 빌려서 자신의 어린애를 呼稱했다. 상형자로 어린아이의 머리·손발의 모

습을 나타낸다(李陽冰이 말하기를 “어린애는 포대기 속에 있을 때 다리와 발이 모두 함께 포개져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단지 두 손만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

【段玉裁】· 陽氣動 萬物滋 : 『史記·律書』에서 “子는 불어난다는 滋의 뜻이니 만물이 아래에서 불어나는 것이다”라 하였다. 『漢書·律曆志』에서 “子에서 싹이 튼다.”라고 하였다(律書에 子者는 滋也니 言萬物이 滋於下也라 律曆志曰 孳萌於子라하니라).

• 人以爲僂 : 人은 여러 판본에서 잘못 入이라 하였으나 지금 (人으로) 바로잡는다. 이것은 朋을 朋攏의 뜻으로 사용하고, 韋를 皮韋의 뜻으로 쓰고, 烏를 烏呼의 뜻으로 쓰고, 來를 行來의 뜻으로 쓰고, 西를 東西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가차의) 例이다. 무릇 ‘以爲’라고 말한 것은 모두 허신이 六書의 假借의 法을 發明한 것이다. 子는 본래 ‘陽氣動 萬物滋’의 호칭이나 萬物은 사람보다 더 神靈스런 것이 없기 때문에 假借를 통해 사람의 呼稱으로 삼은 것이다(人은 各本에 譌入이나 今正이라 此는 與以朋爲朋攏하고 以韋爲皮韋하고 以烏爲烏呼하고 以來爲行來하고 以西爲東西로 一例라 凡言以爲者는 皆許君이 發明六書假借之法이라 子本陽氣動 萬物滋之僂이나 萬物은 莫靈於人 故로 因假借하여 以爲人之僂이라).

• 象形 : 물체가 滋生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사람의 머리와 손발의 형태를 나타낸다(象物滋生之形이오 亦象人首與手足之形也라).³⁾

【桂馥】· 『광야』에서 말하였다. 갑을 등 10干이 幹이 되니 幹은 태양의 神이다. 寅卯 등 12支가 枝가 되니 枝가 달의 靈이다(廣雅에 甲乙爲幹이니 幹者는 日之神也오 寅卯爲枝니 枝者는 月之靈也라).

• 十一月 : 天統, 地統, 人統의 三統에서 하나라 때 寅月로 歲首를 삼은 人統이 그 바름을 얻은 것이다(三統之義는 夏得其正이라).

• 陽氣動 萬物滋 : 『釋名』에서 말하였다. 子는 孳의 뜻이니 陽氣가 처음 자라나 아래에서 생겨난 것이다. 易에서는 坎이 되고 坎은 險하다는 뜻이다(釋名에 子는 孳也니 陽氣始萌하여 孳生於下也라 於易爲坎이니 坎은 險也라).

『白虎通』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1월에는 陽氣가 비로소 根核을 기르기 때문에 黃泉의 아래에서는 만물이 다 붉다. 붉은 것은 陽氣가 왕성한 것이다. 따라서 周나라는 天正(子月歲首)을 사용했고 색깔은 붉은 것을 숭상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1월의 律을 黃鍾이라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中和之氣에 해당하기 때문이니 鍾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니 陽이 黃泉의 아래에서 萬物을 길러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白虎通에 十一月之時는 陽氣가 始養根核故로 黃泉之下에 萬物皆赤하니 赤者는 盛陽之氣也라 故周爲天正하고 色尙赤也라 又云 十一月을 律謂之 黃鍾은 何오 當中和之氣니 鍾者는 動也니 言陽이 於黃泉之下에 動養萬物也라).

- 人以爲稱 : 서개가 말하였다. 11월 야반에 陽氣가 일어나고 사람은 陽을 계승하여 그 처음의 근본을 삼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일컫는다 하였다. 木書의 包字 아래에 이르기를 “元氣는 子에서 일어나고 子는 사람이 생겨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徐鍇曰 十一月夜半에 陽氣所起오 人承陽하야 本其初故로 以爲稱이라 本書 包下에 云元氣는 起於子하니 子는 人所生也라하니라).⁴⁾
[王筠] • 十一月 陽氣動 萬物滋 : 11월의 앞에 마땅히 ‘孳也’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丑下에 ‘紐也’라 했지만 下文에 紐字가 없는 것으로 추리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滋也’라고 해야 되니 이것은 寅下에 髓也라고 하고 下文에 다시 髓字가 나오는 것으로 추리한 것이다(十一月之上에 當云孳也니 此는 以 丑下에 云 紐也로대 而 下文에 不見紐字로 推之라 否則當云滋也니 此는 以寅下에 云髓也而 下文에 再見髓字로 推之라).
- 人以爲稱 : 子는 남자의 美稱이다. 허신은 干支를 같은 종류끼리 모았기 때문에 子月로서 바른 뜻을 삼고 男子로 빌린 뜻을 살았으니 부화뇌동해서도 안되고 또한 반박하여 바로잡을 필요도 없다(子者는 男子之美稱也라 許君은 以干支類聚故로 以子月로爲正義하고 男子로 爲借義니 不可附和오 亦不須駁正也라).⁵⁾

[正易原義] • 子는 坎卦(☵)의 陽이 坎水 속에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子는 滋(자라나다, 불어나다)의 뜻이라고 한다. 古支의 명칭은 곤돈인데 혼돈을 말한다(子는 象坎卦之陽이 陷坎水故로 曰子者는 滋也라하니라 古支名은 困敦이니 言混沌也라).⁶⁾

2) 丑

丑(丑)은 紐也라 十二月에 萬物動하야 用事라 象手之形이니 日加丑하면 亦舉手時也라.

[번역] 丑은 地支의 2번째 자리로 12월의 월건이다. 12월은 地澤臨(☵☱)패니 비록 2개의 陽이 아래에 있으나 4개의 陰이 여전히 뭉쳐서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때 아주 추운 시기는 이미 지났으나 寒氣가 아직 흠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끈이 묶여져 있고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만물은 모두 장차 生長繁殖하고자 하지만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기구를 수리하고 농사일을 계획하고 있는 때이다. 指事字이고 又자는 손의 모습인데 一획을 더하면 손가락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나타내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나 아직 할 수 없는 것을 表示하니 날씨가 아직 춥기 때문이다. 丑은 또한 매일의 시간을 표시하니 徐鍇가 말하기를 “동틀 무렵이 丑이 된다”고 하였다. 이때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손을 들어 振作할 것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丑에 手자가 있는 것도 매우 깊은 이치가 있다.²⁾

[段玉裁] • 丑 紐也 : 『한서·율력지』에서 “丑에서 싹이 묶여있다.”라고 하였고 『석명』에서는 “丑은 묶는다는 뜻이니 찬 기운 때문에 스스로 구부러지고 묶여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律曆志

曰 紐牙於丑이라하고 釋名曰 丑은 紐也니 寒氣自屈紐也라하니라).

糸部에서 “紐는 묶는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으로는 묶인 것을 풀 수 있다.”라 하였다. 12월은 陰氣가 단단하게 묶어놓은 것이 이미 점차 풀어지기 때문에 紐(풀다)라 하였다(糸部曰 紐는 系也라하고 一曰結而可解라하니라 十二月에 陰氣之固結이 已漸解故로 曰紐也라).

- 十二月 萬物動 用事 : 12월에 陽氣가 위로 통한다(十二月에 陽氣上通이라).
- 象手之形 : 사람은 이때에 손을 들어 作爲를 한다. 又는 手의 뜻이다. 又에 3손가락을 연결했으니 하려고 하나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人이 於是에 舉手有爲라 又者는 手也니 从又而聯綴其三指하니 象欲爲而凜冽氣寒하야 未得爲也라).
- 日加丑 亦舉手時也 : 위에서는 月을 이야기 했고 여기서는 日을 말한 것이다. 매일 태양이 丑에 오면 또한 사람이 손을 들어 振作할 것을 생각하는 때가 된다(上言月하고 此言日이라 每日 太陽이 加丑하면 亦是人舉手思奮之時라).³⁾

[桂馥] • 十二月 萬物動 用事 : 『白虎通』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2월의 때에 만물이 처음 싹이 나서 희니 흰 것은 陰氣이다. 또 말하였다. 12월을 律에서 大呂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大는 크다는 뜻이고 呂는 막는다는 뜻이니 陽氣가 나오려고 하나 陰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日虎通에 十二月之時는 萬物始芽而白하니 白者는 陰氣라 又云十二月을 律謂之大呂는 何오 大者는 大也오 呂者는 拒也니 言陽氣欲出이나 陰不許也라).⁴⁾

[王筠] • 用事 : 「월령」의 季冬條에 “농민에게 명하여 짝을 지어 밭갈 일을 계획하게 한다.” 하였다. 注에서 “아주 추운 날씨가 지나가 농사일을 장차 시작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月令季冬에 命農하야 計耦耕事라 注에 明大寒氣過니 農事將起也라하니라).⁵⁾

[正易原義] • 丑은 十과 五가 결합된 글자이니 地10과 天5의 己와 戊의 數가 갖추어진 것이다. 또 土克水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土에 속하는 소가 추위를 보내는 類가 이것이다 古支의 명칭은 적분약이니 양기가 만물을 떨쳐서 속히 나오게 함에 모두 그 성품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丑은 俱(함께하다)의 뜻이 있다고 한다(丑은 從十從五니 地十天五之己戊數가 備焉이라 又土克水而生成萬物하고 土牛送寒之類가 是也라 古支名은 赤奮若이니 言陽氣奮迅萬物에 皆若其性故로 曰丑者는 俱也라하니라).⁶⁾

3) 寅

寅(寅)은 體也라(段注當作演) 正月에 陽氣動하야 去黃泉 欲上出이나 陰尚強也니 象一不達하야 體寅(注當作演)於下也라.

[번역] 寅은 지지의 3번째 자리이고 하나라 曆으로 正月의 월건이다. 정월은 地天泰(☰☷)괘니 3개의 양이 아래에 있고 3개의 음이 위에 있다. 이때 陽氣는 이미 발동하여 黃泉을 떠나 음기를 배척하고 지표면으로 上出하고자 하나 음기가 아직 강하여 둘의 실력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때이다.

會意字로 위에 있는 宀은 陰氣를 表示하니 양기를 拘束하여 위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艮은 양기를 상징하니 날카롭게 위로 올라가 나가려고 하나 위에서 宀에 막혀서 단지 꿈틀거리며 아래에서 動하고 있을 뿐이다. 臼은 두 손이 되니 모든 양기를 배척하는 것을 상징한다.²⁾

[段玉裁] • 贗也 : 贗자는 잘못된 글자이다. 마땅히 濱으로 써야 한다. 『사기』와 『회남자』에 贗으로 되어있다. 『사기·율서』에서는 “寅은 만물이 시생하여 꿈틀거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贗은 字之誤也니 當作濱이라 史記 淮南王書에 作 贗이라 律書曰 寅은 言萬物始生하여 贗然也라하니라).

『한서·율력지』에서 “寅에서 이끌어 나오게 한다.”라 하였고 『釋名』에서는 “寅은 자라나는 것이니 물체가 생겨나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律曆志曰 引達於寅이라하고 釋名曰 寅은 演也니 演生物也라하니라).

水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濱은 수맥이 땅속에서 졸졸 흐르는 것이고 演은 길게 흘러가는 것이다. 세속 사람들이 두 글자를 구별하지 못해 濱을 흔히 演으로 오인하였다. 濱으로 寅을 해석한 것은 正月에 陽氣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마치 水泉이 위로 흐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지렁이는 黃泉속에 구부리고 있다가 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글자에 寅이 있게 된 것이다(水部曰 濱은 水脈이 行地中濱濱也오 演은 長流也라하니라 俗人不知二字之別하여 濱多誤爲演이라 以濱釋寅者는 正月에 陽氣欲上出하니 如水泉欲上行也라 贗之爲物은 詰詰於黃泉이라가 而能上出 故로 其字从寅이라).

• 正月 陽氣動 去黃泉 欲上出 陰尙強也 : 杜預는 『左傳』의 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땅속에 있는 샘이므로 黃泉이라고 했다. 陰이 위에서 強하여 陽이 곧장 나오지 못하는 것이 마치 宀이 위에서 막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宀이 있는 것이다(杜注左傳曰 地中之泉 故로 曰 黃泉이라하니라 陰上強하여 陽不能徑逐가 如宀之屋於上 故로 从宀이라).

• 象宀不達 贗寅於下也 : 贗寅은 잘못된 글자이다. 마땅히 濱濱으로 해야 한다. 혹자는 贗贗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宀은 陰氣가 아직 강한 것을 나타내고 艮은 陽氣가 황천을 떠나 上出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낸다(贗寅은 字之誤也니 當作濱濱이라 或曰 當作贗贗이라하니라 宀은 象陰尙強이오 艮은 象陽氣가 去黃泉欲上出이라).³⁾

[桂馥] • 寅 贗也 : 寅과 贗은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서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贗은 물리친다는 뜻이다. 艮은 陽氣가 위로 날카롭게 나가나 宀에 막히고 臼는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니 象

形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一도 역시 올라오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다(寅贗은 聲相近이라 徐鍇曰 贗은 擯斥之意라 艮은 陽氣上銳로대 而出闕於宀也오 臼所以擯也라 象形이라 馥謂一亦所以擯이라).

• 正月 陽氣動 去黃泉 欲上出 陰尙強 象宀不達 贗寅於下也 : (『백호통』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正月의 律을 太簇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太는 크다는 뜻이고 簇는 모은다는 뜻이니 만물이 비로소 커져서 땅에 모여서 나오는 것이다(又云正月을 律謂之太簇는 何오 太亦大也오 簇者는 湊也니 言萬物始大하여 湊地而出也라).⁴⁾

[王筠] • 寅 贗也 : 桂馥과 마찬가지로 徐鍇의 說을 인용하고 있다.

• 正月 陽氣動 去黃泉 欲上出 陰尙強 象宀不達 贗寅於下也 : 간보가 易을 설명한 곳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正月의 때에 陽氣가 위로 나오기 때문에 屯卦는 물체가 처음 생겨나는 것이고 蒙卦는 물체가 어린 것이다(干寶說易云 正月之時에 陽氣上達 故로 屯爲物之始生이오 蒙爲物之穉也라).⁵⁾

[朱駿聲] • 寅은 敬에 머무는 것이다. 宀과 臼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체를 상징하고 臼은 손으로 짊 조인 형태이다. 申과 같은 뜻이다(寅은 居敬也라 从宀 工은 象人體오 从臼는 手自約束之形이니 與申同意라).⁷⁾

[正易原義] • 寅은 木克土를 해서 처음 생겨난 것을 상징하니 아직 地 上에 나오지 않은 것이니 또한 풀이 어렵게 나오는 것과 같다. 古支의 명칭은 섭제격이니 만물이 陽을 이어 나옴에 꿈틀거리며 생겨나는 것이다(寅은 象木克土而始生者니 姑未出地上也니 亦猶草之爲屯也라 古支名은 攝提格이니 言萬物이 承陽而起에 寅然而生也라).⁶⁾

4) 卯

卯(卯)는 冒也라 二月에 萬物이 冒地而出이라 象開門之形이니 故로 二月이 爲天門이라

[번역] 卯는 地支의 4번째 자리이고 2월의 月建이다. 2월卦는 雷天大壯(☳☰)괘니 4개의 양이 아래에 있고 2개의 음이 위에 있다. 陽氣가 왕성하여 陰氣가 이미 克制할 수가 없으므로 각종 식물이 모두 땅을 뚫고서 나오니 卯는 冒가 된다. 象形字니 문을 열어 놓은 형태로 萬物이 이미 나온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二月은 陰陽의 出入을 관장하는 天門 중의 春門이라고 일컬어진다.²⁾

[段玉裁] • 卯 冒也 二月 萬物 冒地而出 : 『사기·율서』에서 “卯라는 글자는 茂(무성하다)의 뜻이니 만물이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한서·율력지』에서 “卯에서 더부룩하게 솟아 올라

온다”고 하였다(律書曰 卯之爲言은 茂也니 言萬物茂也라하고 律曆志에 冒莠於卯라하니라).

『釋名』에서는 “卯는 冒(뚫고 솟아 올라오다)의 뜻이니 땅을 뚫고 흙을 이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양기가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땅에서 나오는 것이다(釋名曰 卯는 冒也니 戴冒土而出也니 蓋陽氣至是하여 始出地라).

- 象開門之形 : 글자가 門을 열어놓은 모습을 나타낸다(字象開門也라).
- 故二月爲天門 :卯는 春門이 되니 만물이 이미 나오게 된다(卯爲春門이니 萬物已出이라).³⁾

[桂馥] • 卯 冒也 : 서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二月에는 陰이 陽을 제압하지 못해 陽이 용감하게 나온다(徐鍇曰 二月에 陰不能制陽하여 陽冒而出也라).

- 象開門之形 : 增韻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卯는 양쪽 문이 서로 등진 것이니 해가 卯에서 나오니 문을 여는 때이다. 卯와는 다르니 卯는 양쪽에서 문을 닫은 것이니 위의 획이 연결되어 해가 卯에서 들어간 것이니 문을 닫는 때이다(增韻에 卯從兩戶相背니 日出於卯니 關戶之時也라 與卯不同하니 卯從兩關戶니 上畫連하여 日入於卯니 關戶之時也라).
- 故二月爲天門 : 『사기·천관서』에서 “蒼帝가 덕을 행하면 天門이 열린다”고 하였다(史記 天官書에 蒼帝行德하면 天門爲之開라하니라).⁴⁾

[正易原義]卯는 나무의 거꾸로 생겨난 것이 줄기를 펼쳐 땅에서 나왔으니 뿌리마디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卯는 茂(무성하다)라고 하였다. 古支의 명칭은 單闕(선연이라 읽는다)이니 양기가 만물을 밀쳐서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卯는 象木之倒生者가 展輪出地而根節은 盤于地中故로 曰卯者는 茂也라하니라 古支名은 單闕이니 言陽氣가 推萬物而生也라하니라).⁶⁾

5) 辰

辰(辰)은 震也라 三月에 陽氣動하고 雷電振하여 民農時也니 物皆生이라 ㄱ乙匕하니 匕象芒達이오 ㄱ聲이라 辰은 房星이니 天時也라 ㄱ二하니 二는 古文上字라 辰은 古文辰이라.

[번역] 辰은 지지의 5번째 자리이고 3월의 월건이다. 3월은 澤天夫(☱)괘가 되니 다섯 개의 陽이 아래에 있고 1개의 음이 위에 있다. 이때에 陽氣는 펼쳐 일어나 發泄하고 천둥·번개가 쳐서 바로 농민들이 농사일에 힘쓰는 때이다.

각종의 초목은 모두 生長하기 시작하여 싹튼 것이 다 나오고 굽은 것이 다 곧아져 온통 生機가 넘친다. 辰은 震이고 振의 뜻이며 또한 動의 의미이다. 形聲字로 形符는 乙, 匕와 二가 숨겨진 것이고 聲符는 ㄱ이다. 乙은 이른 봄에 초목이 乙乙하여 힘들

게 나오는 모습인데 이때에 이르면 비로소 變化가 일어나 가지가 뻗고 잎이 자란다. 匕는 變化의 化이다. 또 옛날에 房星을 大辰이라 하여 그의 운행은 농부들이 관심을 기울여 이를 빌려 농사일에 安排하였으니 그것은 天時를 표시한다. 하늘은 위에 있어 二가 있으니 二는 古文의 上字이다. 古文의 辰은 一을 쓰고 二를 쓰지 않았다. 一은 古文 上字(즉 二)의 생략이다.²⁾

[段玉裁] • 辰 震也 三月 陽氣動 雷電振 民農時也 物皆生 : 震과 振은 옛날에 通用했다. 振은 奮(떨칠 분)의 뜻이다. 『史記·律書』에서는 “辰은 만물이 진동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漢書·律曆志』에서는 “辰에서 아름다움을 떨친다.”고 하였다. 『석명』에서는 “辰은 퍼는 것이니 물체가 다 펼쳐져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음력 3월에 生氣가 바야흐로 왕성하고 陽氣가 發泄하여 굽어진 것이 다 나오고 싹튼 것이 다 뻗어나간다. 二月에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처음으로 치며 3월에는 크게 振動한다(震振은 古通用이라 振은 奮也라 律書曰 辰者는 言萬物之振也라하고 律曆志曰 振美於辰이라하고 釋名曰 辰은 伸也니 物皆伸舒而出也라하니라 季春之月에 生氣方盛하고 陽氣發泄하니 句者畢出하고 萌者盡達이라하니라 二月에 雷發聲하고 始電至하며 三月而大振動하니라).

- ㄱ乙匕 : 匕는 호과의 반절음(화로 발음)이니 변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두글자가 합쳐진 會意字이다(匕는 呼跨로 切이니 變也라 此合二字會意라).

이달에 이르면 양기가 大盛하여 구불구불 어렵게 나왔던 것이 비로소 변화하게 된다(至是月하면 陽氣大盛하여 乙乙難出者가 始變化矣라).

- 匕象芒達 : 芒達은 뾰족하게 나왔던 풀(草芒)이 다 뻗는다는 뜻이다(芒達은 芒者가 盡達也라).
- ㄱ聲 : 서현 등은 ㄱ의 음이 환(呼旱切)으로 소리가 아닌 듯하다고 하였다(鉉等은 疑ㄱ은 呼旱으로 切이니 非聲이라하니라).
- 辰 房星 天時也 : 이것은 ㄱ二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이유를 말한 것이다. 晶部의 農字 아래에서 “(農은) 房星이니 백성들에게 일찍 일어나 농사에 힘쓸 때라는 것을 알려준다. 晶과 辰이 합쳐진 形聲字로 晶이 形符로 별의 모습을 나타내고 辰이 소리를 나타낸다. 혹 생략하여 農으로 쓴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房星의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辰을 房星이라고 한 것은 辱의 아래에서 “房星은 辰星이라고도 부르니 옛날에는 이것의 운행으로 농사의 節侯를 기준 삼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글자 또한 辰으로도 쓴다. 『爾雅』에서 “房心尾가 大辰이 된다.”고 하였으니 옳다(此는 將言从二하야 先說其故也라 晶部 農字下曰 房星이니 爲民田時者라 从晶辰聲이니 或省作農이라하니 此房星之字也로대 而此云辰 房星은 辱下云 房星爲辰이니 田候也라하니 則字亦作辰이라 爾雅에 房心尾가 爲大辰이라하니 是也라).³⁾

[著者注] 農은 房星으로 28宿의 하나로 동방 蒼龍七宿의 4번째

자리이다. 이것은 商의 분야의 별임으로 또한 商星이라고도 부른다. 입춘날 새벽에 이별이 남쪽 하늘의 正中央에 나타나고 특히 그의 왼쪽의 心宿의 큰 별이 가장 빛이나 마치 사람들에게 일찍 일어나 농사에 힘쓸 때라고 지시하는 것 같다.

[桂馥]·『사기·율서』에서 “辰者是言萬物之娠也라”고 했다. 내가 보건대 娠은 마땅히 蹶으로 해야 한다. 本書(설문해자)에서 “蹶은 動也라”고 하였다(史記律書에 辰者是言萬物之娠也라하니라 馥謂娠은 當爲 蹶이니 本書에 蹶은 動也라하니라).

• 『백호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월의 律을 姑洗(고선)이라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姑는 故의 뜻이고 洗는 鮮의 뜻이니 만물이 모두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데 나아가 鮮明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다(白虎通에 三月을 律謂之姑洗은 何오 姑者는 故也오 洗者는 鮮也니 言萬物이 皆去故就其新하야 莫不鮮明也라).

• 三月 陽氣動 雷電 : 『예기·월령』에서 “우레가 소리를 내고 번개가 시작한다.”고 하였다(月令에 雷乃發聲하고 始電이라).

• 振民農時也 : 『회남자천문훈』에서 “辰은 振作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淮南 天文訓에 辰은 則振之也라). (桂馥은 “백성들이 振作하여 농사지을 때이다”라고 구두했다.)

• 匕象芒達 : 『삼례의종』에서 “물체가 처음 생겨날 때 모두 구불구불하고 芒角(뾰족하고 날카로운 끝)이 있다.”고 하였다(三禮義宗에 物始生에 皆句曲而有芒角이라).

『方言』에서 “뾰족한 것이 나온다”고 했다. 注에서 “풀의 뾰족한 끝이 뻗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方言에 達芒也라 注云謂草秒芒이 射出이라하니라).

「月令」의 季春之月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生氣方盛하고 陽氣發泄하니 句者畢出하고 萌者盡達이라.” 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句는 굽어서 생겨난 것이고 뾰족하면서 곧은 것을 萌이라고 한다(月令 季春之月에 生氣方盛하고 陽氣發泄하니 句者畢出하고 萌者盡達이라 注云 句는 屈生者오 芒而直을 曰萌이라).

• 辰 房星 天時也 : 本書(설문해자)의 農 아래에 “辰은 때를 알려준다.”라고 했고 曆의 아래에서는 “辰은 농사짓는 때이다. 따라서 房星을 辰星이라고도 하니 농사짓는 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라 했으며 農의 아래에서 “房星이니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는 때이다.”라고 하였다(本書 農下云辰은 時也라하고 曆下云辰者는 農之時也라 故房星爲辰이니 田候也라하고 農下云房星이니 爲民田時者라하니라).

송충이 “辰은 龍星이다.”라고 했다(宋衷曰辰은 龍星也라).

王逸이 注를 단 초사에서 “辰星은 房星이다.”라고 하였다(王注 楚辭에 辰星은 房星也라).

鄭玄이 注를 단 『周禮·大司樂』에서 “房心이 大辰이 된다.”고 하였다(鄭注 周禮 大司樂云房心이 爲大辰이라).

『爾雅釋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大辰은 房心尾의 별자리이다. 大火를 大辰이라 한다. 郭璞은 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龍星이 밝은 것은 농사짓는 때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大

辰은 大火心이다.”라고 하였으며 가운데서 가장 밝기 때문에 농사짓는 절후를 주장한다(釋天에 大辰은 房心尾也라 大火를 謂之 大辰이라 郭注에 龍星明者는 以爲時候라 故曰大辰은 大火心也라 在中最明故로 時候主焉이라).

何休가 말하였다. 大火(心)와 伐(大辰)은 하늘이 백성들에게 때의 早晚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取해서 바름을 삼기 때문에 大辰이라 하니 辰은 時이다. 이것은 하늘의 政敎가 大辰에서 나오는 것이다(何休云大火與伐은 天所以示民時早晚이라 天下가 取以爲正故로 謂之大辰이니 辰은 時也라 是天之政敎가 出於大辰이라).⁴⁾

[王筠] 尸聲 : 尸은 마땅히 尸으로 해야 되니 身자에도 尸이 있고 尸을 따라 “신”으로 발음한다. 植鄰의 반절음이니 “신”으로 읽는다(尸은 當作尸이니 身亦從尸聲이니 植鄰으로 切이라).⁵⁾

[正易原義] 辰은 天과 艮이 습한 글자이니 艮은 동쪽이며 그친다는 뜻이니 하늘에서 일월이 합해져 동쪽에 그쳐 있다는 뜻이다. 또 四仲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土에 속한다. 古支의 명칭은 짐서니 침복했던 것이 모두 천천히 펼쳐져서 일어남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辰은 물건이 임신함이 있다라고 이른다(辰은 從天從 艮이니 艮은 東也며 止也니 天日月之合宿가 止於東之義也라 且 居四仲之位故로 屬土라 古支名은 執徐니 言蟄伏者가 皆叙徐而起故로 曰辰物有娠이라).⁶⁾

6) 巳

巳(으)는 巳也라 四月에 陽氣已出하고 陰氣已滅하야 萬物見하야 成文章하니 故로 巳曰爲它(桂馥 王筠本에는 蛇로 되어 있다)라 象形이라.

[번역] 巳는 지지의 여섯 번째 자리로 4월의 월건이다. 4월은 重天乾(☰)괘로 6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陽氣는 이미 모두 放出이 되고 陰氣는 이미 완전히 潛藏되어 각종 生物이 모두 출현하고 또한 각종의 아름다운 모양과 무늬를 드러낸다. 巳는 巳(이미 이)의 뜻으로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따라서 글자를 뱀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뱀이 이미 나오고 뱀에는 무늬가 있기 때문이다. 象形字이고 굽은 모습을 나타낸다. 12支로 紀年하고 또한 12가지 동물의 띠가 있는데 巳는 뱀이 된다.

[段玉裁]·巳巳也 : 『사기·율서』에서 “巳는 만물이 이미 다 나온 것을 말한다.”하였고 『한서·율력지』에서 “巳에서 이미 왕성하다”하였으며 『회남자천문훈』에서 “巳는 생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하였고

『석명』에서는 “이미 다 펼쳐져서 그쳐있다”고 해석하였다. 辰巳의 巳는 이미 오랫동안 已然 巳止의 巳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바로 已然之巳로 해석하였다. 「서괘전」에서 “蒙은 蒙이다.

比는 比다. 剝은 剝이다”라고 해석하였고 『모시전』에서 “虛는 虛다”라 하여 예로부터 혼고함에 본래 이러한 例가 있었으니 즉 본래의 글자를 썼고 다른 글자를 빌리지 않았다(律書曰 巳者是言萬物之已盡也라하고 律曆志曰 已盛於巳라하고 淮南 天交訓曰 巳則 生已定也라하고 釋名曰 巳畢布已也라하니라 辰巳之巳는 既久用爲 已然已止之巳라 故即以已然之巳로 釋之라 序卦傳에 蒙者는 蒙也라 比者는 比也라 剝者는 剝也라하고 毛詩傳曰 虛는 虛也라하니 自古訓에 故有此例하니 即用本字用 不假異字也라).

- 陰氣已藏 : 지금의 藏字이다(今藏字라).
- 成彡彰 : 그래서 巳라고 말한 것이다(故曰巳也라).
- 故巳爲它象形 : 巳는 형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뱀으로 형상한 것이니 뱀은 길고 구부러졌으며 꼬리를 드리우고 있다. 그 글자가 뱀의 모습을 한 것은 陽은 이미 나갔고 陰은 이미 갈무리 된 것을 상징한다. 이 여섯 글자는 하나의 句로 읽는다(그렇다면 번역은 “따라서 巳는 뱀의 형상이 된다”라고 해야 될 것이다). 巳는 뱀의 형상이다(巳不可像也라 故以蛇象之니 蛇長而宛曲垂尾라 其字像蛇는 則象陽巳出하고 陰巳藏矣라 此六字는 一句讀라 巳者는 蛇象也라).³⁾

[桂馥] • 巳 巳也 : 巳라 한 것은 巳와 巳가 소리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양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辰巳의 巳는 가차하여 그친다는 巳로 썼다. 『석명』에서 “巳는 巳(그치다)의 뜻이니 양기가 다 펼쳐져서 그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巳也者는 巳巳가 聲相近이라 李陽冰曰 辰巳之巳는 借爲已止之巳라 釋名에 巳는 巳也이니 陽氣畢布已也라).

- 故巳爲蛇 : 살피보건대 篆字에서 巳로 뱀의 형상을 삼고 亥로 돼지의 형상을 삼았으니 나머지도 가히 추리할 수 있다(觀건대 篆字에 巳作蛇形하고 亥作豕形하니 餘可推矣라).⁴⁾

[王筠] • 四月 陽氣已出 陰氣已藏 : 4월의 卦는 乾卦니 모두 陽이고 陰이 없다. 이것을 말한 것은 글자의 뜻과 글자의 형태가 크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여 그 뜻을 이끌어 낸 것이다(四月之卦는 爲乾이니 純陽無陰이라 言此者는 字義與字形이 不大比附 故로 言此하야 以引起之也라).

- 象形 : 뱀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象蛇形也라).⁵⁾
(桂馥도 象形으로 구두했다)

[正易原義] • 巳는 陽이 극도로 발전한 달이니 火氣가 炎上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古支의 명칭은 대황락이니 만물이 크게 나와 아주 많은 것이다(巳는 陽極之月이니 象火氣之炎上也라 古支名은 大荒落이니 言萬物이 大出而荒落也라).⁶⁾

7) 午

午(午)은 午也라 五月에 陰氣가 午逆陽하야 冒地而出也라 此與 矢同意라.

[번역] 午는 지지의 7번째 자리로 5월의 월건이다. 5월은 天風姤(䷫)괘로 5개의 陽이 위에 있고 하나의 陰이 아래에 생긴 것이다. 이때 陽은 왕성하고 陰은 올라오려고 하여 음양이 교차하여 서로 거스른다. 午의 뜻은 거스른다는 뜻이다. 指事字로 上部의 人은 양기를 상징하고 下部의 一은 地面을 표시하고 가운데 丨은 陰氣가 땅에서 올라와 양기와 서로 交午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글자와 矢字 上部는 모두 人으로 되어 있으니 뚫고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다.²⁾

[段玉裁] • 午 午也 : 午는 거슬리는 것이다(午者는 逆也라).

- 五月 陰氣 午逆陽 冒地而出也 : 午와 逆은 각 本에 午逆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바로 잡는다. 「울서」에 “午는 음양이 교차하기 때문에 午라 한다.”하였고 「울력지」에 “午에서 거슬려 펼쳐진다.”하였으며 『회남자천문훈』에서 “午는 거슬리는 것이니 음기가 아래에서 올라와 양기와 서로 거슬리는 것이다”라 하였고 『광아석언』에서 “午는 거슬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作는 곧 午字이다. 4월은 순양이고 5월에 一陰이 陽을 거슬러 땅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 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옛날에 “가로 세로가 서로 교차하는 것을 午라 한다.”하였으니 뜻이引申된 것이다(午並은 各本에 作午逆이니 今正이라 律書曰 午者는 陰陽交 故曰 午라하고 律曆志曰 罅布於午라하고 天文訓曰 午는 午也니 陰氣從下上하야 與陽相件逆也라하고 廣雅釋言에 午는 午也라하니라 按件即午字라 四月純陽이오 五月에 一陰并陽하야 冒地而出 故로 製字以象其形이라 古者에 橫直交互를 謂之午라하니 義之引申也라).
- 此與矢同意 : 矢자의 머리가 午자와 비슷하니 모두 뚫고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矢之首가 與午相似하니 皆象貫之而出也라).³⁾

[桂馥] • 五月 陰氣 午逆陽 冒地而出也 : 서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人은 陽이 되고 一은 땅이 되고 丨은 陰氣가 땅을 뚫고 陽을 거스르는 것이다. 5월에 陽이 극성해 陰이 생겨난다(徐錯曰 人爲陽이오 一爲地오 丨爲陰氣貫地하야 午逆陽也라 五月에 陽極而陰生이라).

『백호통』에서 말하였다. 5월을 律에서 蕤賓이라 하는 것은 어찌서인가. 蕤는 아래라는 뜻이고 賓은 공경한다는 뜻이니 양기가 위에서 극성함에 음기가 처음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경하는 것이다(白虎通에 五月을 律謂之蕤賓은 何오 蕤者는 下也오 賓者는 敬也니 言陽氣上極에 陰氣始起故로 賓敬之라).

『한서·울력지』에서 말하였다. 蕤賓의 蕤는 계속한다는 뜻이고 賓은 인도한다는 뜻이니 陽이 비로소 음기를 인도하여 음기로 하여금 계속 물건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漢書律曆志에 蕤賓의 蕤는 繼也오 賓은 導也니 言陽始導陰氣하야 使繼養物也라).⁴⁾

[王筠] • 午 午也 : 『광아』에서 “午는 午라” 했고 『회남자천

문훈』에서 “午는 忤라 했는데 忤와 忤는 모두 悟의 俗體이다(廣雅에 午는 忤也오 淮南 天文訓에 午者는 忤也라하니 忤忤는 皆 悟之俗體라).

• 살피건대 午는 指事에 속하는데 허신이 말하지 않았으니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하다(案컨대 午屬指事而許君이 不言하니 蓋有闕文이라).⁵⁾

[正易原義] • 午는 --와 十字로 이루어 졌으니 十은 土이고 二(--을 말하는 것 같다)는 火니 火生土의 뜻이다. 古支의 명칭은 屯장이니 만물이 왕성하고 씩씩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다(午는 從 --從十이니 十은 土也오 二는 火也니 火生土之義也라 古支名은 敦艱이니 言萬物盛壯之意也라).⁶⁾

8) 未

未(未)는 昧也라 六月에 滋味也라 五行은 木老於未하니 象木重枝葉也라.

[번역] 未는 지지의 여덟 번째 자리이고 6월의 월건이다. 6월은 天山遯(☶)괘로 4개의 양이 위에 있고 二陰이 아래에 있다. 이때 각종 초목이 모두 풍성하게 자라고 무성하며 그 열매도 모두 맛이 있어 먹을 수 있다. 未는 昧니 즉 맛이다. 오행설에 따르면 木은 亥에서 生하니 亥는 북방에 있어 水에 속하고 水는 木을 旺하게 한다. 卯에서 盛하니 卯는 동방에 있어 木에 속하니 바로 木德이 命을 받는 때이다. 未에서 죽으니 未는 남방에 있어 火에 속하니 火는 나무를 태우고 또 未는 申에 가깝고 申은 金에 속해 金克木하니 가을에 수확한다는 뜻을 말한다. 이때 초목은 극성했다가 장차 쇠하려 하니 이미 열매를 맺은 것은 늙어 죽는 前兆를 보이는 것이다. 象形字로 木字와 비교해 보면 나무에 가지와 잎이 중첩되어 길게 나온 것을 상징한다.²⁾

[段玉裁] • 六月 滋味也 : 「울서」에서 “未는 만물이 다 왕성하게 되어 맛이 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회남자천문훈』에서 “未는 어둡다”라고 하였고 「울력지」에서 “未에서 가려져 어둡게 된다” 하였으며 『석명』에서 “未는 어두운 것이니 해가 남중했다가 기울어져 어두움을 향해가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광아석언』에서 “未는 맛이다”라 하였다. 허신의 설명은 『사기』와 같다(律書曰 未者는 言萬物皆成하여 有滋味也라하고 淮南 天文訓曰 未者는 昧也라하고 律曆志曰 昧夔於未라하고 釋名曰 未는 昧也니 日中則昃하여 向幽昧也라하고 廣雅 釋言曰 未는 昧也라하니 許說은 與史記同이라).

• 象木重枝葉也 : 늙으면 가지와 잎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 글자가 이를 나타낸다(老則枝葉重疊 故로 其字象之라).³⁾

[桂馥] • 六月 滋味也 : 『백호통』에서 말하였다. 6월의 律을 林鍾이라 하는 것은 어찌서인가. 林은 많다는 뜻이니 만물이 성숙하여 종류가 많다는 것이다(白虎通에 六月을 律謂之林鍾은 何

오 林者는 衆也니 萬物成熟하여 種類衆多라).

『한서울력지』에서 말하였다. 林鍾의 林은 君이니 陰氣가 임질을 맡아 蕤賓함을 도와 군의 백성을 그로 하여금 크게 자라게 하고 무성하게 하는 것이다(漢書 律曆志에 林鍾의 林은 君也니 言陰氣受任하여 助蕤賓하여 君主種物을 使長大裨盛也라).⁴⁾

[王筠] • 六月 滋味也 : 6월의 아래에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하다. 「울서」에서 “未는 만물이 다 완성되어 맛이 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허신이 대개 이 문장을 가져다 쓴 것이다(六月之下에 蓋有闕文이라 律書에 未者는 言萬物皆成하여 有滋味也라하니 許君이 蓋用其文이라).

• 五行 木老於未 : 『회남자천문훈』에서 “木은 亥에서 生하여 卯에서 盛하고 未에서 死한다.”하였는데 허신이 이것을 말한 것은 글자의 뜻은 昧이고 글자의 형상은 木이 무성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여 그 뜻을 이끌어 낸 것이다(淮南 天文訓에 木生於亥하고 盛於卯하고 死於未라하니 許君이 言此者는 以字義는 是味오 字形은 是木茂盛之狀故로 言此하여 以引起之라).⁵⁾

[正易原義] • 未는 土와 木이 합해진 글자로 木은 8木이고 土는 10土이다. 古支의 명칭은 협흡이니 만물이 和合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未는 從土從木하니 木은 八木也오 土는 十土也라 古支名은 協洽이니 言萬物和合而成也라).⁶⁾

9) 申

申(申)은 神也라 七月에 陰氣成하여 體自申束이라 申自持也니 吏以舖時에 聽事하여 申旦政也라.

[번역] 申은 지지의 아홉 번째 자리이고 7월의 월건이다. 7월은 天地否(☷)괘로 三陽이 위에 있고 三陰이 아래에서 생겨 三陰이 坤卦를 이루어 땅이 되고 三陽인 乾卦의 天과 匹敵之勢를 형성한다. 이때 陽氣는 法度를 바르게 하여 음기로 하여금 마땅히 손상시킬 물건을 소멸하게 하여 뺏어나갈 것은 발전을 촉진시키고 압축해야 할 것은 엄하게 묶게 하니 일체의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의 神明이 主宰함이 있는 듯하다. 申의 뜻이 神이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指事字로 曰는 두 손을 자연스럽게 마주잡은 것이니 협동하는 동작이고 가운데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 그은 것은 동작의 대상을 표시한다. 地支도 매일의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데 옛날에 하루를 12時로 나누어 地支로 나타내었는데 申時는 지금의 오후 3~5시를 나타낸다. 옛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는데 두 번째 먹는 끼가 舖로 申時에 해당된다. 관리들은 舖時에 또한 두 번째로 관아에 앉아 정사를 처리하는데 아침에 첫 번째 사무를 볼 때 發布한 정령의 집행정황을 검토하여 법도를 거둬 밝힌다.²⁾

[段玉裁] • 申 神也 : 神은 알 수가 없다. 마땅히 본래 글자인

申으로 해야 되니 “巳는 巳也라”의 예와 같은 것이다.

이 申西의 篆字는 즉 지금 인용된 뜻(하나의 뜻에서 확대 응용된 뜻)임을 말하는 것이다. 淺人이 그 예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어 神으로 고친 것이다.

古說을 살펴보면 합치되는 것이 없다. 『사기·율서』에서 “申은 陰이 用事하여 거듭 만물을 해치기 때문에 申이라 한다.”하였고 『한서·율력지』에서 “申에서 다시 견고해진다.”하였으며 「친문훈」에서 “申은 늘이는 것이다.”라고 하여 모두 申으로 申을 해석했으니 허신이 근본 한 것이로되 지금의 『회남자』에서 申之를 고쳐 呻之라고 했으니 한번 웃을만한 일이다. 혹자는 “神은 마땅히 身으로 해야 한다.”하였으니 아래에서 “陰氣成體”라 하였고 『석명』, 『진서·악지』, 『옥편』, 『廣韻』에서 모두 “申은 身也라” 하였다. 허신이 身字에서 “从申省聲”이라 한 것 등이 모두 그 증거이다. 이 설이 옳은 듯하나 허신의 뜻은 아닌 듯하다(神不可通이라 當是本作申이니 如巳는 巳也之例라 謂此申西之篆은 卽今引申之義也니 淺人이 不得其例하고 妄改爲神이라 攷諸古說컨대 無有合者라 律書曰 申者는 言陰用事하여 申賊萬物故로 曰申이라하고 律曆志曰 申堅於申이라하고 天文訓曰 申者는 申之也라하니 皆以申釋申이오 爲許所本이로대 而令本 淮南에 改申之作呻之하니 其可笑一而巳라 或曰 神當作身이니 下云陰氣成體라하고 釋名 晉書樂志 玉篇 廣韻에 皆云申은 身也라하니라 許說身字에 从申省聲이 皆其證이라 此說近是나 然恐尙非許意라).

[著者注] • 『설문해자』에서 身자를 찾아보면 从人厂聲이라하여 段注의 从申省聲과 다르게 되어 있다.

- 七月 陰氣成 體自申束 : 陰氣成은 三陰이 이루어져 否卦가 된 것이다. 옛날의 屈伸字는 誦申이라 썼고 또 信이라고 했으니 伸이라 쓴 것은 俗字이다(陰氣成은 謂三陰成하야 爲否卦也라 古屈伸字는 作誦申하고 亦段信이니 其作伸者는 俗字라).
- 从臼自持也 : 臼는 손을 깎지 낀 것이다. 申과 晨은 같은 뜻이니 의당 丨(음은 신)은 펴는 것을 나타내고 臼는 묶는 것을 나타낸다. 빠진 글자가 있는 듯하다(臼는 叉手也라 申與晨은 要同意라 當是从丨은 以象其申하고 从臼는 以象其束이라 疑有奪文이라).

[著者注] • 申과 晨이 같은 뜻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晨은 寅의 誤가 아닌가 생각된다.

- 吏以舖時 聽事 申旦政也 : 舖는 申時에 밥을 먹는 것이다. 申旦政은 子產이 말한 “아침에 정사를 듣고 저녁에 명령했던 것을 잘 처리한다.”는 것이고 公父文伯의 어머니가 이른바 “경·대부는 아침에 그 직책을 살펴보고 저녁에 그 할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니 선비가 아침에 業을 받고 저녁에까지 익히고 반복하는 것이다(舖者는 日加申時에 食也라 申旦政者는 子產 所謂朝以聽政하고 夕以修令이오 公父文伯之母가 所謂卿大夫는 朝攷其職하고 夕序其業이니 士朝而受業하고 夕而習復也라).³⁾

[桂馥] • 『백호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7월의 律을 夷則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서인가. 夷는 상하게 한다는 뜻이고 則은 법이니 만물이 비로소 손상되어 刑法을 받는 것을 말한다(白虎通에 七月을 律謂之夷則은 何오 夷는 傷이오 則은 法也니 言萬物始傷하야 被刑法也라).

- 申 神也 : 『풍속통』에서 “神은 申이다.”라고 하였다(風俗通에 神者는 申也라).
- 七月 陰氣成體 : 『한서·율력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夷則의 則은 法이다. 陽氣가 법도를 바로잡음에 陰氣로 하여금 마땅히 손상시킬 물건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漢書律曆志에 夷則의 則은 法也니 言陽氣正法度而使陰氣로 夷當傷之物也라). 『진서·악지』에서 말하였다. 7월은 申이니 申은 身이니 이때 만물의 身體가 다 성취되는 것이다(晉書樂志에 七月은 申이니 申은 身也니 言時萬物身體가 皆成就라).

서개가 말하였다. 7월은 三陰이 되기 때문에 陰氣成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살펴건대 서개는 成字에서 끊어서 구두했는데 틀린 것 같다(徐鍇曰 七月에 三陰故로 曰陰氣成이라 馥案컨대 徐讀成字絶句나 似誤라).

- 自申束 : 본서(설문해자)의 竦字 아래에 “束은 스스로 몸을 묶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本書竦下云은 束은 自申束也라하니라). 『석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申은 身이니 만물이 모두 그 몸을 이루 어 각각 수렴하고 묶어 하여금 완성됨을 갖추는 것이다(釋名에 申은 身也니 物皆成其身體하야 各申束之하야 使備成也라).⁴⁾

[王筠] • 申 神也 : 本注의 神은 身과 같은 뜻이니 精神魂魄의 神이다(本注之神은 與身同義니 蓋精神魂魄之神이라).

- 體自申束 : 字形을 해석하는 것이다. 申束은 수렴한다는 뜻이니 한나라 사람들이 서로 전해온 옛 해석이다(所以起字形也라 申束者는 摯斂之意니 漢人相傳之故訓也라).
- 『회남자·도응훈』에서 “約車申轅”이라 하였다. 注에서 “申은 묶는다는 뜻이다.” 라고 하였다. 「내직」의 鄭玄注에서 “큰 띠로 묶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묶는 것이다”라고 했다. 살펴건대 紳約은 또한 바로 申束이다(淮南道應訓에 約車申轅이라 注에 申은 束也라하니라 內則 鄭注에 紳大帶는 所以自紳約也라하니라 案紳約은 亦卽申束이라).
- 從臼 自持也 : 丨의 음은 失人으로 切이니 ‘신’이다(失人으로 切이라).
- 吏以舖時 聽事 申旦政也 : 또한 神을 계승해서 말한 것이다(仍承神也하야 言之라).⁵⁾

[朱駿聲] • 申은 몸을 묶는 것이다. 臼는 스스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 丨은 身이다. 指事字이고 寅과 같은 뜻이다(申은 束身也라 从臼는 自持也오 从丨은 身也라 指事니 與寅同意라).⁷⁾

[正易原義] • 申은 三괘에 중획을 가한 것이니 土生金의 뜻이다. 또 처음 생겨난 金이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기 때문에 납철이라 부르니 그 기운이 사물을 해친다. 古支의 명칭은 군탄(툰탄이라고도 읽는다)이니 만물이 토해낸 것이 늘어진 모습이니 물체가 퍼지는 것이다(申은 三加中畫이니 土生金之義라 且始生之金이 柔韌故로 曰납 鐵이니 其氣爲賊物이라 古支名은 涪灘이니 言垂萬物吐之貌니 卽物之舒也라).⁶⁾

[저자주] ‘曰납 鐵’은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

10) 酉

酉(酉)는 就也라 八月에 黍成하니 可爲酎酒라 象古文酉之形也라 𠂔는 古文酉니 𠂔 𠂔라 𠂔爲春門이니 萬物已出하고 𠂔爲秋門이니 萬物已入이라 一은 閉門象也라.

[번역] 酉는 지지의 열 번째 자리로 8월의 월건이다. 8월은 風地觀(䷓)괘니 二陽이 위에 있고 四陰이 아래에 있다. 이때는 수확의 계절로 각종 농작물이 모두 이미 성숙되는데 이중 기장으로 美酒를 양조할 수 있다. 酉는 就의 뜻이고 就는 成의 뜻이니 농작물이 성숙된 것을 말한다. 象形字로 대략 古文의 酉字(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𠂔는 古文의 酉자이다. 指事字이고 𠂔에서 왔으니 𠂔는 문이 열린 모습을 나타낸다. 𠂔는 春門이니 春門이 한번 열리면 만물이 모두 生長하기 시작하고 𠂔는 秋門이니 陽氣가 閉藏하고 陰氣가 用事하여 각종 농작물 모두가 수확하여 저장된다. 함께 天門이 된다. 옛날에 卯字로 門의 모습을 나타냈다. 春門은 열리고 秋門은 닫히니 따라서 위에 一획을 加하여 閉門의 모습으로 삼았다. 卯, 酉는 古音이 비슷하니 여전히 卯를 聲符로 볼 수 있다.

[按] • 酉의 篆文과 古文은 같은 글자가 아니다. 篆文은 술을 담아 놓은 그릇을 나타내고 옛글자에서 酒字로 쓰였다. 그리고 酉로 偏旁을 삼은 글자도 대부분 술과 관련이 있다.²⁾

[段玉裁] • 酉 就也 : 就는 높다는 뜻이다. 『사기·율서』에서 “酉에서 만물이 늙는다.” 하였고 『한서·율력지』에서 “酉에서 잡아머물게 한다” 하였으며 『회남자·천문훈』에서 “酉는 배부른 것이다.”라 하였고 『석명』에서 “酉는 열매 맺는 것이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만물이 모두 완성된 것이다.”라고 하였다(就는 高也라 律書曰 酉者는 萬物之老也라하고 律曆志曰 留執於酉라하고 天文訓曰 酉者는 飽也라하고 釋名曰 酉는 秀也니 秀者는 物皆成也라 하니라).

• 八月黍成 可爲酎酒 : 이것은 一物을 들어서 就를 말한 것이다. 기장은 大暑에 심어 8월이 되면 성숙되니 벼가 8월에 성숙되는 것과 같다. 벼를 말하지 않은 것은 술을 만들 때 흔히 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酎는 三重酒이다. 반드시 술을 말한 이유는 옛

날에 술은 酉라는 그릇을 써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뜻이 같아서 就라고 말한 것이다(此는 舉一物以言就라 黍는 以大暑而種하고 至八月而成하니 猶禾之八月而就也라 不言禾者는 爲酒多用黍也라 酎者는 三重酒也라 必言酒者는 古酒可用酉爲之라 故其義同하야 曰就也라).

• 象古文酉之形也 : 古文의 酉는 𠂔를 말한다. 𠂔字의 모습과 비슷하여 酉의 篆字를 만들었다(古文酉는 講𠂔也라 仿佛𠂔字之形而製酉篆이라).

• 𠂔古文酉 𠂔 𠂔: 𠂔에서 왔는데 一은 문을 닫은 것이다(从𠂔니 一以閉之라).³⁾

[桂馥] • 『백호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酉는 물건이 늙어 수렴하는 것이다. 또 말하였다. 8월의 律을 南呂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南은 말한다는 뜻이다. 陽氣가 아직 책임이 있어 냉이와 보리를 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陰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다(白虎通에 酉者는 老物收斂이라 又云八月을 律謂之南呂는 何오 南者는 任也니 言陽氣 尙有任하야 生蕎麥也라 故陰拒之也라).

• 『진서·악지』에서 말하였다. 8월은 酉이다. 酉는 緝의 뜻이니 이 때가 되면 만물이 모두 수렴되어 緝縮(수축)하게 됨을 말한다(晉書樂志에 八月은 酉니 酉는 緝也니 言時物皆緝縮也라).

• 八月 黍成 可爲酎酒 : 『한서·율력지』에서 말하였다. 南呂의 南은 말한다는 뜻이니 陰氣가 夷則을 도와 만물을 책임지고 완성하는 것이다(漢書律曆志에 南呂의 南은 任也니 言陰氣旅助夷則하야 任成萬物也라).

『漢舊儀』에서 “8월에 酎酒를 마신다.”고 하였다(漢舊儀에 八月 飲酎라).

• 『漢書音義』에서 “정월 초하루에 술을 담그면 8월에 익는데 이를 酎라고 부른다.”고 하였다(漢書音義에 正月旦作酒면 八月成하니 名曰酎라).⁴⁾

[王筠] • 酉 就也 : 酉는 옛날의 酒자이다. 따라서 『율력지』에서 “留執於酉”라 하고 『천문훈』에서 “酉者 飽也”라 하였으니 留, 飽는 모두 酉와 疊韻이다. 허신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酒의 篆字 아래에 “就也”라고 하여 함께 하나의 의미로 썼으니 족히 그 뜻을 볼 수 있다(酉는 乃古酒字也라 故로 律曆志曰 留執於酉라하고 天文訓曰 酉者는 飽也라하니 留飽는 皆與酉爲疊韻이라 許君不用而獨與酒篆下에 就也라하야 同用一義니 足見其意矣라).

• 象古文酉之形也 : 酉는 마땅히 𠂔로 해야 한다(酉當作𠂔라).⁵⁾

[正易原義] • 酉는 서방의 地支이기 때문에 酉에 一획을 加한 것이다. 古支의 명칭은 작악이니 만물이 모두 일어난 모습이니 즉 만물이 늙은 것이다(酉는 西方辰故로 從酉加一畫이라 古支名은 作醜이니 言萬物이 皆起之貌니 卽物之老也라).⁶⁾

11) 戌

戊(戌)은 威也라 九月에 陽氣微하고 萬物畢成하며 陽下入地也라 五行에 土生於戌하고 盛於戌이라 ㄴ戊一하니 一亦聲이라.

[번역] 戊은 지지의 11번째 자리로 9월의 월건이다. 9월은 山地剝(䷖)괘로 一陽이 위에 있고 五陰이 아래에 있어 陰盛陽衰 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때 陽氣는 미약하고 각종 농작물은 모두 이미 성숙하여 수확되었고 초목은 시들어 떨어져 온 천지가 쓸쓸하고 죽어는 氣象이고 양기는 내려가 땅속으로 들어간다. 戊은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만물이 生機를 잃어버린다.

오행설에 의하면 土는 戊에서 생기는데 戊己는 中宮이고 土德을 얻는다. 一說로는 午에서 생기니 午는 南方과 火에 속하고 火는 土를 生할 수 있다. 戊에서 왕성해지는데 戊은 西方과 金에 속하고 土는 金을 生할 수 있기 때문에 왕성해진다. 會意字로 戊가 一을 품고 있는 것이다. 一은 陽이 되어 生을 主하고 土生金의 뜻을 나타낸다.²⁾

[段玉裁] • 戊 威也 九月 陽氣微 萬物畢成 陽下入地也 : 威을 大徐(徐鉉)는 滅이라 했는데 아니다. 火部에서 “威은 滅也라” 했고 『毛詩傳』에 근거해보면 “火死於戌”이라 하였다. 陽氣는 戊에 이르러 끝나기 때문에 威은 火와 戌이 결합된 것이니 이것은 威로 戌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율서」에서 “戊은 만물을 다 滅하게 한다.” 하였고 『회남자·천문훈』에서 “戊은 滅也라” 하였으며 「울력지」에서 “戊에서 다 들어간다.” 하였고 『석명』에서 “戊은 불쌍히 여김이니 만물이 수렴을 당해 불쌍히 여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9월은 剝卦로 五陰이 方盛하고 一陽이 장차 다 끝나 양이 내려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글자가 土속에 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威을 大徐作滅하니 非라 火部曰威은 滅也라하고 本毛詩傳권대 火死於戌이라하니라 陽氣至戌而盡 故로 威从火戌이니 此以威釋戌之旨也라 律書曰 戌者는 萬物盡滅이라하고 淮南 天文訓에 戌者는 滅也라하고 律曆志에 畢入於戌이라하고 釋名에 戊은 恤也니 物當收斂하여 矜恤之也라하니라 九月은 於卦爲剝이니 五陰方盛하고 一陽將盡하여 陽下入地故로 其字가 从土中畝一이라).

• 五行 土生於戌 盛於戌 : 戊와 午는 合德한다. 「천문훈」에서 “土는 午에서 생겨나 戊에서 壯하고 寅에서 죽는다.”고 하였다 (戊午合德이라 天文訓曰 土生於午하고 壯於戌하고 死於寅이라하니라).

• ㄴ戊一 : 戊는 中宮이고 또한 土이다. 一은 一陽이니 戊土 속에 一을 간직한 것이니 회의자이다(戊者는 中宮이니 亦土也라 一者는 一陽也니 戊中畝一이니 會意也라).³⁾

[桂馥] • 『백호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9월을 律에서 無射이라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射은 마친다는 뜻이니 만물이 양기를 따라서 마치는 것이다. 『한서·율력지』에서 “畢入於戌”이라 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無射의 射은 싫어한다는 것이다. 陽氣가 물건에서 사라져 陰氣가 다 양기를 벗기고 떨어지게 했지만 다시 시작하여 그침을 싫어함이 없는 것이다(白虎通에 九月을 律謂之無射은 何오 射者는 終也니 言萬物이 隨陽而終이라 漢書律曆志에 畢入於戌이라하고 又云無射의 射은 厭也니 言陽氣究物而使陰으로 畢剝落之나 終而復始하여 無厭已也라).

『위대방의』에서 고당룡이 말하기를 “土는 처음 未에서 생겨 戊에서 盛하고 辰에서 끝난다.”고 하였다(魏臺訪議에 高堂隆曰 土始生於未야야 盛於戌하고 終於辰이라하니라).⁴⁾

[王筠] • 五行 生於戌 盛於戌 : 字形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회남자·천문훈』에서 “土生於午하고 壯於戌하고 死於寅이라”하고 『위대방의』에서 고당룡이 “土始生於未하고 盛於戌하고 終於辰이라”하였는데 모두 허신의 설명과는 다르다(爲說字形張本也라 淮南 天文訓에 土生于午하고 壯於戌하고 死於寅이라하고 魏臺訪議에 高堂隆曰 土始生於未하고 盛於戌하고 終於辰이라하니 皆與許說異라).⁵⁾

[正易原義] • 戊은 土生金하여 금이 왕성하게 되어 茂盛했던 만물을 숙살시켜 없애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茂자와 滅자가 戌자와 비슷하다. 古支의 명칭은 엄무니 만물이 모두 위로 나온 것을 잠기게 함을 말한다(戊은 土生金而金旺야야 肅殺茂盛之物而滅之也라 故로 從茂從滅이라 古支名은 闡茂니 言萬物이 皆淹冒也라).⁶⁾

12) 亥

亥(豕)는 豕也라 十月에 微陽起하여 接盛陰이라 ㄴ二하니 二는 古文上字也라 一人男 一人女也오 ㄴ(하)니 象懷子咳之形也라 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이라하니라 亥爲豕니 與豕同이라 亥而生子하면 復從一起라.

[번역] 亥는 지지의 12번째 자리로 10월의 월건이다. 10월은 重地坤(䷁)괘로 6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는 陰極陽生하여 微陽이 땅속에서 일어나 盛陰과 서로 만난다.

陰속에 陽이 있으니 사람이 임신한 것과 같다. 亥는 豕가 되니 豕는 뿌리이고 뿌리는 아래에서 생겨나니 양기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會意字로 二가 있으니 二는 古文의 上字로 陰氣가 위에 있는 것을 표시한다. 아래에 두사람이 있으니 오른쪽의 한사람은 남자이고 왼쪽의 한사람은 배를 두드리니 여자가 된다.

배를 치는 것은 ㄴ자인데 배를 치는 것을 나타내며 태아가 속에서 몸을 구부린 모습을 나타낸다. 『좌전』 양공 30년條에서 “亥에는 二首六身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 글자가 숫자 二는 머리가 되고 3개의 숫자 六이 글자의 몸을 組成하니 만약 글자 머리의 二와 글자 몸의 3개 六字를 가로로 배열하면 二六六六이 一組가 된 숫자를 組成한다. 그 당시 晋나라에서 쓰던 亥자는 구불구불하여 대부분 丁形이 되고 丁는 산가지에서 六을 표

시하기 때문이었다. 12가지 동물 중에서亥는 돼지이고 字形도 豕와 비슷하다. 12地支는 여기에 이르러一周기가 되니亥의 모습은 임신한 형태이고亥 다음이 子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숫자가 10에 이르면 또 1에서 시작하여 순환이 끝이 없는 것과 같다. 이 책의 部首순서는 一에서 시작하여亥에서 끝나는 것이 곧 이 뜻이다.²⁾

[段玉裁] • 亥 豕也 十月 微陽起 接盛陰 : 「울력지」에서 “亥에서 다 닫는다.”하였고 「천문훈」에서 “亥는 닫는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며 『석명』에서 “亥는 核實(일의 실상을 조사함. 또는 씨)이니 모든 물건을 거두어 갈무리하여 그 좋고 나쁘고 참되고 거짓된 것을 살펴서 취하는 것이다(또는 씨앗 속에서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허신이 쫓라고 한 것은 쫓는 뿌리이니 陽氣가 아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10월은 坤卦가 되고 微陽이 땅속에서 일어나 盛陰을 接하니 곧 壬의 아래에서 “음이 극성하여 양이 생기기 때문에 『주역』에서 ‘음이 들에서 싸운다’ 하였으니 싸운다는 것이 음양이 만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律曆志曰該關於亥라고 하고 天文訓曰亥者는 閔也라고 하고 釋名曰亥는 核也니 收藏萬物하여 核取其好惡眞僞也라하니라 許云豕也者는 亥는 根也니 陽氣가 根於下也라 十月은 於卦爲坤이니 微陽이 從地中起하여 接盛陰이니 卽壬下所云陰極陽生故로 易曰龍戰於野니 戰者는 接也라).

• 二 二古文上字也 : 陰이 위에 있는 것을 이른다(謂陰在上也라).

• 一人男 一人女也 : 그 아래에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라는 것은 乾道는 成男하고 坤道는 成女한다는 것을 형상한 것이다(其下从二人하니 一人男一人女는 像乾道成男하고 坤道成女라).

• 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 : 『좌전』 양공 30년에 있는 문장이다. 공영달의 『左傳正義』에서 “2획은 머리가 되고 6획은 몸이 된다.”라고 하였다. 살펴보면 지금의 篆法에 몸이 단지 5획만 있으니 주나라 때 머리가 2획, 아래가 6획으로 되어 있었으니 지금의 篆法과는 같지 않다(左傳 襄三十年文이라 孔氏 左傳正義曰 二畫爲首 六畫爲身이라하니라 按今篆法컨대 身祇有五畫이니 蓋周時에 首二畫이오 下作六畫이니 與今篆法으로 不同也라).³⁾

[桂馥] • 『진서약지』에서 “10월은亥니亥는 탄핵한다는 劾이니 음기가 만물을 쳐서 죽임을 말한다.”라고 하였다(晉書 樂志에 十月은亥니亥는 劾也니 言陰氣가 劾殺萬物이라).

• 亥 豕也 : 서개가 말하기를 “만물의 뿌리가 모두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范子가 말하였다. 陽은 생하는 것을 주장하니 만물이 여름의 3개월의 때에 大熱하지 않으면 만물이 성숙할 수 없고 음기는 죽이는 것을 주장하니 겨울 3개월의 때에 땅속에 갈무리되지 않으면 뿌리가 완성되지 않아 즉 봄에 싹이 트지 않는다(徐鍇曰言萬物之豕가 皆動也라 范子曰陽者는

主生하니 萬物이 方夏三月之時에 大熱不至하면 則萬物이 不能成하고 陰氣는 主殺하니 方冬三月之時에 地不內藏하면 則根莖不成하여 卽春無生이라).

• 十月 微陽起 接盛陰 : 서개가 말하기를 “10월은 坤卦의 上六爻니 陰極하여 陽이 장차 생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徐鍇曰十月은 坤之上六이니 陰極陽將生也라).

『백호통』에서 말하였다. 10월의 律을 應鐘이라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鍾은 움직이는 것이니 만물이 陽에 應하여 움직여 아래에 갈무리 되는 것이다(白虎通에 十月을 律謂之應鐘이라하니 何오 鐘은 動也니 言萬物이 應陽而動下藏也라).

『시위』에서 말하였다. 陽은 酉仲에서 생겨나고 陰은 戌仲에서 생기니 10월 중에는 음양이 함께 있는 것이다(詩緯曰陽生酉仲하고 陰生戌仲하니 是十月中에 兼有陰陽也라).

• 一人男 一人女也 二 象懷子咳咳之形 : 二人은 임신한 자식을 나타내니 왼쪽이 남자와 오른쪽이 여자이다(二人은 象所裹之子니 左爲男이오 右爲女也라).

서개가 말하였다. 10월의 때에 양기가 싹이 트니 盛陰이 陽을 감응하여 만물을 모두 안에서 머금고 기르니 사람이 아이를 뱃것을 상징한다(徐鍇曰十月之時에 陽氣萌兆하니 盛陰感陽하여 萬物을 皆含育於內하니 象人之懷妊胎兆라).

• 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 : 字書を 살펴보면 옛날의 亥字는 글자체가 달라 그렇지 않았다. 대개 춘추시대의 亥字에는 二六의 字體를 가졌으니 古制와는 다른 것이었다. 『설문』은 小篆으로 되어 있으니 또 이것과도 다르다. 내가 살펴건대 孔氏가 “별도로 二首六身の 亥字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本書의 小篆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案字書컨대 古之亥字는 體殊不然이라 蓋春秋之時에 亥字는 有二六之體하니 異於古制라 其說文은 是小篆之書니 又異於此라 馥案컨대 孔氏謂別有二首六身之亥라하니 非謂本書小篆이라).⁴⁾

[王筠] • 二 象懷子咳咳之形 : 二은 두 사람의 왼쪽에 있으니 회임한 모습이다(二在二人之左하니 裹之之狀也라).

咳咳는 거듭 말했으니 자궁 속에서 구부리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 같다(咳咳는 重言之하니 似指胞中拳曲之狀이라).

• 亥爲豕 與豕同意 : 亥가 豕가 되는 것은 巳가 蛇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亥爲豕는 與巳爲蛇로 同이라).⁵⁾

[正易原義] • 亥는 10월의 월건으로 先天의 純陰의 달이다. 老陰이 交하여 變하고 變의 시작은 陽水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坤의 上六爻에서 “其血玄黃”이라 하였으니 黃은 土의 正色이니 坤土를 이르는 것이고 玄은 水의 正色이니 亥水를 이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글자가 亥과 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또 水가 처음 생겨나는 것이니 얼어서 흐르지 못하는 것이다. 冬이라는 글자는 대개 여기서 취한 것이다. 古支의 명칭은 대연현이니 크게 만물을 하늘에 드리는 것이니 陽氣가 아래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亥는 十月之建으로 先天純陰之月이라 老陰交而變하고 變之始則陽水生故로 坤之上六曰其血玄黃이라하니 黃은 土之正色이니 坤土之謂也오 玄은 水之正色이니 亥水之謂也라 故從玄從水라 且水之始生이니 凍而未流니 冬之爲字는 蓋取諸此라 古支名은 大淵獻이니 言大獻萬物於天이니 陽氣가 深藏於下也라).⁶⁾

고찰

10干과 12支는 天地의 變化를 파악하는 중요부호이다. 12支에 대하여 최초로 해설을 한 서적은 『史記·律書』이고 다음은 『漢書·律曆志』이다. 『설문해자』는 기원후 100년경 허신이 지은 최초의 字典으로 이 책은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설문해자』의 맨 마지막에서 十二地支의 12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地支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다. 저자는 12地支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설문해자』에 있는 12地支의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說文四大家의 주석을 통하여 원문에 대한 주석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十清 李斯文이 지은 『正易原義』에서 설명한 12地支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찰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說文解字에서 12地支를 설명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地支와 12개월을 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12地支와 12月の 배합을 月建이라 하는데 복두칠성의 6번째·7번째 별이 초저녁에 가리키는 방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의거해보면 夏曆(寅月을 歲首로 삼는 것)으로 子월은 11월이 되고, 丑월은 12월이 되고, 寅月은 正月이 되고, 卯월은 2월이 되고, 辰월은 3월이 되고, 巳월은 4월이 되고, 午월은 5월이 되고, 未월은 6월이 되고, 申월은 7월이 되고, 酉월은 8월이 되고, 戌월은 9월이 되고, 亥월은 10월이 된다.

둘째, 12월과 배합된 12地支의 의미를 음이 비슷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직접 그 뜻을 한 글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훈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聲訓 혹은 義訓의 방식이다. 許慎은 子는 불어나고 자란다는 滋(王筠 보충)라 하였고, 丑은 묶는다는 紐, 寅은 물리친다는 贖, 卯는 힘차게 뚫고 올라온다는 冒, 辰은 움직인다는 震, 巳는 그친다는 已, 午는 거스른다는 旡, 未는 맛을 낸다는 味, 申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神, 酉는 성숙된다는 就, 戌은 만물을 滅 한다는 威, 亥는 뿌리 속에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豨라고 하였다.

셋째, 허신은 12地支와 12個月을 단순하게 배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地支가 배합된 달에는 陽氣와 陰氣의 出入盛衰에 의해 그 地支에 符合하는 생명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子月인 11월에는 陽氣가 動하여 萬物이 땅속에서 滋養되고, 丑月인 12

월에는 萬物이 動하여 나오려고 하나 아직 날씨가 추워 묶여(紐) 있는 상태이고, 寅月인 3월에는 陽氣가 動하여 땅속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나 陰氣에 의해 배척(贖)을 받고 있고, 卯월인 2월에는 萬物이 땅을 뚫고서(冒) 힘차게 올라오고, 辰월인 3월에는 陽氣가 動하고 천둥번개가 쳐서 만물이나 농민들이 動하여(震) 움직이는 때이고, 巳월인 4월에는 陽氣는 모두 나오고 陰氣는 속으로 들어가 만물이 모두 드러나 문채를 이루는 때이고, 午월인 5월에는 陰氣가 땅을 뚫고 올라와 陽氣와 만나는 때이고, 未월인 6월에는 초목이 성숙하여 열매를 맺어 과일이 고유의 맛을 내는 때이고, 申월인 7월에는 陰氣가 성장하여 身體를 수렴하는 때이고, 戌월인 9월에는 陽氣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陰氣가 만물을 盡滅하는 때이고, 亥월인 10월에는 盛陰의 시기이지만 微陽이 起하여 음속에 陽氣가 潛藏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넷째, 十干과 비교해보면 十干은 초목의 한살이를 통해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마디마디의 과정을 설명하였지만, 十二支는 陽氣와 陰氣의 出入盛衰를 특히 강조하였고 人事와 관련시켜 설명한 내용이 많은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즉 丑에서 사람이 농사를 준비하는 때라 하였고, 辰에서 백성들이 부지런히 농사에 힘쓰는 때라 하였으며, 申에서 申時의 때에 아침에 命한 정사를 검토하는 때라 하였고, 酉에서 酉月에는 곡식을 추수하여 술을 담그는 때라 하였다. 이는 天地成함으로 天道의 변화는 추상적이지만 地道의 변화는 땅위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 人事와 직접 관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어서 12地支 하나하나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단 『白虎通』과 『漢書·律曆志』에서 12律呂를 설명한 내용은 일관성이 없고 건강부회한 듯하여 본 고찰에서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 그리고 李斯文은 古支(歲陰)를 해설하였는데 梁任公이 歲陽·歲名(歲陰)의 명칭은 “衍聲而非衍形也(소리를 적은 것이지 字形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⁸⁾라고 한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역시 고찰에서 제외하였다.

子의 本義는 陽氣가 動하여 萬物의 뿌리가 滋養되는 것이고 이를 가차하여 어린애의 뜻으로 쓴다고 하였다. 桂馥이 廣雅의 내용을 인용하여 10干이 日神의 변화이고 12支가 月靈의 변화라고 한 것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는 天地의 대행자가 日月이 되기 때문이다. 王筠이 子 다음에 孳也 혹은 滋也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좋은 내용이다.

『정역원의』에서 子의 모습을 ☵괘로 보고 坎水 속에 陽이 빠져서 水에 의해 陽이 滋養된다고 본 것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된다.

丑은 만물은 아직 陰氣에 묶여있고 사람들도 농사를 준비하는 때라 하였다. 단옥제가 紐를 묶여있다는 뜻뿐만 아니라 묶인 것이 점차 풀어지는 때라 본 것도 참고할만하다.

『정역원의』에서 丑字를 十과 五의 결합으로 본 것은 丑은 본래 5土이고 그 목적이 10土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十土의 象이 있고 또 丑은 方位五行이 5土이고 變化五行도 5土여서 습하면 10土가 됨으로 10土의 모습이 있다. 10土와 5土는 土克水함으로 子水의 一陽을 탈출시키는 적격자가 된다.

寅은 陽氣가 動하여 땅속을 떠나 위로 올라오나 陰氣에 막혀 저지당하는 모습이다. 단옥제가 巛을 瀼으로 보고 巛寅을 瀼瀼으로 보아 水脉이 땅속에서 졸졸 흐르는 모습이라고 본 것도 역시 참고할만하다.

桂馥이 寅을 破字하여 人은 陽氣가 上銳하는 陽氣動의 모습이고 艸에 막히고 一에 막히고 다시 日에 의해 저지당하여 아직 陰尙強하다고 본 것도 좋은 설명이다.

『正易原義』에서는 寅을 屯의 뜻으로 보아 풀이 힘들게 나오는 모습이라 하였다.

卯는 만물이 문을 열어 놓은 것처럼 땅을 뚫고 나와서 짝이 트는 때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는 12지에서 東西에 있는 卯를 春門이라고 酉를 秋門이라 하여 日出과 日入을 상징하며, 萬物의 生死가 出入하며 각종 식물의 生長과 閉藏을 주관하는 중요한 門戶라고 하였다. 글자의 모습도 小篆에서는 卯는 冎로 써서 문이 열린 모습을 나타내고 酉의 古文은 冎로 써서 문이 닫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正易原義』에서는 卯라는 글자 모습이 초목의 뿌리는 땅속에 있지만 지상에서는 줄기가 나온 모습이라 하였다.

辰은 음력 3월에 陽氣가 더욱 動하여 천둥번개가 치고 만물의 짝이 트는 것이 위로 뻗어 자라고 백성들은 부지런히 농사에 힘쓰는 때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는 때는 房星이 남쪽 하늘의 중앙에 나타나는 때인데 房星을 辰星이라고도 부른다하여 둘의 관련성도 밝히고 있다. 허신은 辰字의 由來도 설명하고 있다. 辰의 小篆(𠄎)을 보면 二乙匕와 厂으로 구성되어 있다. 二는 古文의 上字인데 단옥제는 房星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3월에 陽氣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초목이 위로 자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듯하다. 乙은 처음 구불구불 짝이 났던 것을 나타내고 匕는 化로 乙했던 것이 陽氣가 大盛함을 만나 변화되어 가지와 잎이 뻗고 자라는 모습이다. 匕象芒達은 처음 뻗족하고 날카롭게(芒) 나왔던 것이 뻗어 나가는 것(達)을 나타낸다.

厂은 聲符라 했다. 徐鉉은 厂의 음이 ‘환’으로 辰을 신 또는 진으로 읽는 것과 관련이 없어 聲符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王筠은 厂은 厂으로 써야 되고 厂의 음이 ‘신’이므로 辰의 음이 ‘신’이라고 밝힌 것은 타견이다.

『正易原義』에서 辰은 天과 艮이 합한 글자이고 艮의 뜻이 ‘동방’, ‘그친다’는 뜻이 있으니 하늘에 있는 日月이 습하여 동방에 그쳐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

巳는 4월에 양기는 모두 나오고 음기는 모두 들어가 만물이 모두 드러나서 문채를 나타내는 때라고 하였다. 허신은 巳와 亥에 대해서 巳는 뱀의 모습이고 亥는 돼지의 모습이라고 특별히 말하였다. 12지지는 배속되는 12가지 동물이 있는데 이 巳와 亥는 직접 그 동물을 형상한 것이라고 하였다. 桂馥은 이에 의거하여 나머지 地支도 관련된 동물을 추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듯하다.

『正易原義』에서 巳는 火氣가 炎上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午는 음력 5월로 夏至가 들어 있는 달이다. 夏至에는 一陰이 始生하여 陽과 만나는 때이다. 그리하여 원문에서 陰氣가 땅을 뚫고 나와 陽과 교차하는 것이라 하였다. 徐鉉은 小篆 午(𠄎)에서 人은 陽의 모습이고 一은 땅이고 丨은 陽氣가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라 했는데 타당한 설명이다.

『正易原義』에서 午는 二와 十의 결합이고 二는 火를 나타낸다고 했다. 二는 離卦의 主爻이고 中爻임으로 火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二와 十의 결합을 火生土로 본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는데 午는 10土土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未는 6월이 되면 열매가 맛을 낸다고 하였다. 왕균은 6월 다음에 글자가 빠진 듯하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생각이다. 허신은 未의 소전 未의 모습이 木과 비슷하여 五行에서 木은 未에서 늙는다고 하였고 또 소전 未의 모습은 나무에 가지와 잎이 중첩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여 未를 木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木의 三合五行은 亥卯未이고 이것이 12胞胎法에서는 生旺葬을 나타낸다. 12胞胎法은 만물의 一週期를 胞胎養生, 浴帶冠旺, 衰病死葬의 12단계로 나타내는데 木은 申에서 胞하고, 酉에서 胎하고, 戌에서 養하고, 亥에서 生하고, 子에서 浴하고, 丑에서 帶하고, 寅에서 冠하고, 卯에서 旺하고, 辰에서 衰하고, 巳에서 病하고, 午에서 死하고, 未에서 葬한다.

허신이 木이 未에서 老한다고 했는데 12胞胎法에서는 葬하는 자리로 실지로 木의 분출력이 끝이 나는 자리이다.

『正易原義』에서 未를 土와 木이 습해진 글자라고 하였는데 未는 8木의 기운은 끝이 나고 10土의 기운이 충만 된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申은 神이라 하였고 陰氣가 성장하여 모든 물체가 스스로 성장이 정지된다고 하였다. 또 글자의 모습이 두손으로 대상을 꼭 잡고 있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申時에 관리들은 아침에 명했던 일들을 점검하고 검토한다고 하였다.

神에 대해 단옥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하였고 申 또는 身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계복도 神을 申의 뜻으로 보았으나 왕균은 그대로 神으로 보았는데 성장이 정지되고 만물이 수렴되는

것은 천지자연의 조화로 神明의 主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듯하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7월에는 陰氣成하여 體自申東이라고 구두하나 계복은 陰氣成體自申東으로 구두하였다.

申東에 대해 단옥재는 申을 뺀다는 뜻으로 보고 束을 묶는다는 뜻으로 보았으나 계복과 왕균이 申束을 묶는다는 뜻으로 본 것이 더욱 이치에 합당하다.

주준성이 巳를 잡는 모습으로 보고 丨을 몸으로 보아 申의 때가 되면 만물의 몸을 묶어 정지시킨다고 본 것도 申束을 묶는다는 뜻으로 본 것과 합치된다.

『正易原義』에서 申을 ䷋괘에 중획을 가해 土生金의 뜻으로 본 것도 좋다. ䷋은 土이고 申은 金인데 저자는 丨을 陽으로 보아 土氣가 陽을 중심에 수렴하면서 金을 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酉는 8월로 만물이 성숙하고 곡식이 익어 술을 담글 수 있는 달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왕균은 酉는 술의 古字이고 就是 술과 관련시켜 해석하여 술을 마신다의 뜻으로 본 듯하다. 이렇게 보면 뒤의 八月黍成 可爲酎酒와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酉의 小篆은 酉이고 古文은 酉이다. 소전의 酉는 숨을 담는 용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酉와 관련된 글자는 모두 술을 나타낸다.

『정역원의』에서 酉는 서방의 地支이기 때문에 서방을 나타내는 酉에 一획을 가한 것이라 하였다. 一획은 陽氣를 속에 갈무리한 것으로 보면 좋을 듯하다.

戌은 만물을 滅하는 때이다. 단옥재는 威字에 火가 들어간 것은 火의 三合五行은 寅午戌로 火는 戌에서 死함으로 (12月胞胎法에서 火는 戌에서 葬한다) 戌과 火가 합하여 威字가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戌은 一陽이 戌土 속에 간직된 모습이다. 9월에는 陽氣가 미약하여 땅속으로 들어가고 농작물은 이미 수확을 끝내고 음기가 왕성하여 초목을 죽이는 때이다.

본문의 “五行은 土生於戌하고 盛於戌”에 대해 단옥재는 『회남자·천문훈』의 土生於午에 근거하여 戌午合德이라고 해석하였다. 土生於戌은 戌字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土生於午는 지지 속에서 土의 내원을 밝힌 것이다.

『정역원의』에서 戌은 土生金하여 金旺하게 되어 무성했던 만물을 숙살지기로 내려쳐 滅하는 때라 하였다. 이는 戌이 土의 자리가기 때문에 土生金이라고 해석한 것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亥를 蓍라고 한 것은 뿌리 속에 양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다. 10월에는 음이 왕성한 때이나 微陽이 일어나 盛陰 속에 들어가니 임신한 모습이 된다. 그래서 亥의 소전 姤에서 二는 위에서 陰氣가 왕성한 모습이고 아래 두 사람은 임신한 태아이고 ㄷ은 임신해서 배가 불룩한 모습이다. 『춘추전』에서 亥字에는 二首

六身이 있다고 했으나 지금의 亥字에서 二首는 확인되나 亥의 아래 획이 4획이라 古文과 지금의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正易原義』에서 亥는 10월이고 10월은 坤이 배합되며 坤卦는 老陰이라서 變하여 陽水가 처음 생겨나는 때라고 하였다. 이것은 坤의 上六爻에서 其血玄黃이라 했는데 黃은 土이고 亥는 水이니 坤土에서 亥水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0干이나 12支는 1년 속에서 만물의 순환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10干은 草木의 한살이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으나 12支는 언뜻 보면 기후의 變動, 草木의 變化, 人事의 當爲 등을 설명하여 체계와 일관성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12支의 설명에서 관통하는 주제는 1년의 기후변화 속에서 陽氣와 陰氣가 由微而盛하고 由盛而衰하는 陰陽의 消長的變化가 中心主題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12地支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子月(11월)은 地雷復(䷗)괘로 盛陰속에서 一陽이 始生하여 생명이 땅속에 潛藏했다가 차차 滋生하는 기전이 있고, 丑月(12월)은 地澤臨(䷒)괘로 二陽이 되어 陽氣가 陰紐를 풀고 땅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寅月(1월)은 地天泰(䷊)괘로 三陽이 되어 生氣가 활발하게 꿈틀거리고,

卯月(2월)은 雷天大壯(䷡)괘로 陽氣가 方盛하여 각종 식물이 땅을 뚫고 나와 싹이 트고, 辰月(3월)은 澤天夬(䷪)괘로 陽氣가 發泄하여 싹이 튼 것들이 힘차게 뻗어서 자라고, 巳月(4월)은 重天乾(䷀)괘로 陽氣는 모두 放出되고 陰氣는 완전히 潛藏되어 만물이 다 나와 文彩를 드러내고, 午月(5월)은 天風姤(䷫)괘로 盛陽속에서 一陰이 始生하여 陰陽이 交하나 만물은 長大하게 자라나고, 未月(6월)은 天山遯(䷠)괘로 陽氣가 아직 旺盛하여 초목이 풍성하며 열매가 익어 맛이 나고, 申月(7월)은 地天泰(䷊)괘로 陰氣가 만물을 해치며 수렴시키고, 酉月(8월)은 風地觀(䷓)괘로 陰氣가 盛하고 陽氣가 衰하여 萬物은 纏縮하며 곡식은 익어 추수하는 때이고, 戌月(9월)은 山地剝(䷖)괘로 一陽은 陰속에 潛藏되어 用事하지않고 5陰이 萬物을 盡滅하는 때이고, 亥月(10월)은 重地坤(䷁)괘로 盛陰이 劾殺萬物하고 微陽이 內部에 潛藏하는 때이다.

결론

12支에 대하여 『說文解字』와 說文四大家의 注釋, 그리고 『正易原義』의 내용을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許慎은 12支를 12달과 배합시키고 12월에 배합된 12支의 의미에 대하여 한글자로 설명을 하였다. 子는 滋, 丑은 紐, 寅은

巽, 卯는 冒, 辰은 震, 巳는 巳, 午는 旃, 未는 味, 申은 神, 酉는 就, 戌은 威, 亥는 釃라 하였는데 12地支가 배합되는 달과 자연의變化가 잘 일치하고 있다.

2. 十干은 초목의 한살이 과정을 통하여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과정을 설명하여 일관성이 있지만 12支는 天道の變化에 따른 陽氣와 陰氣의 出入盛衰, 이에 따른 자연기후의 變動과 草木의 변화, 人事의 當爲등을 설명하여 체계와 일관성이 不足한 듯하나, 1년의 변화 속에서 陽氣와 陰氣가 由微而盛하고 由盛而衰하는 陰陽의 消長的變化가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

3. 陰氣, 陽氣를 中心으로 12支를 설명해보면 子月(11월)에는 盛陰속에서 一陽이 始生하고, 丑月(12월)에는 陽氣가 陰紐를 뚫고 땅속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寅月(1월)에는 三陽이 구비되어 生機가 활발하게 꿈틀거리고, 卯月(2월)에는 陽氣가 方盛하여 각종 식물이 땅을 뚫고 나와 싹이 트고, 辰月(3월)에는 陽氣가 發泄하여 싹이 튼 것들이 힘차게 자라고, 巳月(4월)에는 陽氣는 모두 放出되고 陰氣는 모두 潛藏되며, 午月(5월)에는 盛陽속에서 一陰이 始生하여 陰陽交하고, 未月(6월)에는 陽氣가 아직 왕성하여 열매가 익어 맛이 나고, 申月(7월)에는 陰氣가 만물을 해치고, 酉月(8월)에는 陰氣가 盛하고 陽氣가 衰하여 萬物은 縮하며 곡식은 익어 추수하고, 戌月(9월)에는 一陽은 潛藏되어 用事하지 않고 5陰이 萬物을 盡滅하며, 亥月(10월)에는 盛陰속에 微陽이 潛藏하여 생을 기다리는 때이다.

4. 許慎이 卯의 小篆 卯를 春門, 酉의 古文 酉를 秋門으로 보아 萬物의 生死가 出入하는 門으로 보고 巳의 모습은 뱀을, 亥의 모습은 돼지를 형상한 것이라는 것도 중요 내용이다.

5. 子에서 왕군이 孳也 혹은 滋也를 보충해야 한다하고, 丑에서 단옥재가 紐를 묶인 것을 푼다라고 볼 수 있다 하고, 寅에서 단옥재가 鬣을濱으로 보고, 辰에서 왕군이 厂(환)을 厂(신)으로 보고, 申에서 계복·왕군이 申束을 묶는다고 보고, 酉에서 왕군이 酉를 옛날의 酒字로 보고, 戌에서 단옥재가 威字를 火死於戌로 해석하고, 亥에서 왕군이 乚를 회임한 모습으로 본 것 등은 모두 참고할 가치가 있는 좋은 주석들이다.

6. 『正易原義』의 12支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설명에서 벗어나 12地支에 주역의 卦상과 숫자를 배합하고 五行을 배합하여 해설한 것으로 創意的이고 獨特함으로 역시 참고할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No.20173627).

References

1. Jun GG ed.. Chinese character and Exegetical studies dictionary, Seoul ; Dongmunseon. 1993 ; 118-9.
2. Ri EG, Ga OM ed.. Munbaekdaejo Seolmunhaejayeoksul. Chongju ; Jungwonongminpublisher. 2002 ; 1386-406.
3. Dan OJ ed.. Seolmunhaejaju. Seoul ; Daeseongmunhwasa. 1990 ; 742-74.
4. Gye B ed.. Seolmunhaejajuijeung. Jenam ; Jenoseosa. 2013 ; 1292-322.
5. Wang G ed. Seolmunhaeja Sentence reading. Beijing ; Zhonghua Bookstore. 1988 ; 592-600
6. Lee GG. Jeongyeokwonui. Seoul ; Dongmungwan. 1913 ; 113-34.
7. Joo JS. Seolmuntonghunjeongseong. Beijing ; Zhonghua Bookstore. 1998 ; 833-41.
8. Im Eungchu. UnGihakseol. Shanghai ; Shanghaiwagipublisher. 1982 ; 13.